

남녀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on Conflict Solving Strategies for Dating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수료 김 세 영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조교수 최 나 야

Departmen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ersity

Dissertator : Se Young K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Naya Choi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on conflict solving strategies for dating relationships and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were 231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male students were more psychologically separated from their mothers than female students. When living with parents, students were more psychologically separated from their fathers than their mothers. Secondly, the more independent students were from psychological conflict with their mothers, the less negative strategies they used in conflicts during dating. The closer female students were with their mothers, the more positive conflict solving strategies they used. Thirdly, the students who were freer from conflict with their mothers experienced higher satisfaction with emotional communication when dating. In conclu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was confirmed to be a variable influencing both the effective use of the conflict solving strategies and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주제어(Key Words) :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갈등해결전략(conflict solving strategies), 이성관계만족도(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Naya Choi,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 Jibong-ro, Wonmi-gu, Bucheon-si, Gye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835 E-mail: choinaya@catholic.ac.kr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자아정체감 형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물리적 독립,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 및 진로 결정 등을 꼽을 수 있다(김유숙, 2002; Lapsley, Rice, & Shadid, 1989). 이중에서도 특히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발달과업인 동시에, 대학생의 적응(신지영, 2000), 정체감 형성(정정숙, 1994), 진로결정수준(김순정, 2000; Lopez, 1989), 이성관계(정윤경, 2004) 등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이지인, 박성연, 2008; Frank, Pirsch, & Wright, 1990).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란 부모와의 의존적인 유대 및 결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관계 속에서 사고와 행동에 개별적인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Josselson, 1988). 이와 관련해 Goldenberg와 Goldenberg(1991)는 대학생 시기를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시기로 보고 이러한 독립을 성취하지 못하면, 이성교제, 직업선택, 자아정체감 확립 등 이후 발달과제의 수행 또한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심리적 독립이 다른 발달과업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였다.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관련해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발달 및 학교, 사회 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성관계와 관련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진로발달과 관련해서는 특히 동성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라고 밝혀진바 있으며(박찬주, 1993),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Kinniner, Brigman, & Noble, 1990)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 및 진로수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임, 김창대, 2009; 김영근, 임성문, 2005; 양진희, 김봉환, 2008). 적응에 있어서도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 적응의 수준이 높고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덜 호소한다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신지영, 2000; Beyer, & Goossens, 2003; Hoffman, 1984). 이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지만 심리적 독립이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윤경(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원활한 이성교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oore(1987)는 특히 남자 대학생이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는 데에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분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을 지적하였다(임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8).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존

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박정윤과 김예리(2010)는 남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결혼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여학생의 경우 오히려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을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하였으며, 이진하와 최연실(2006)은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간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는 미혼여성이 오히려 더 높은 심리적 독립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의 상관유형, 성차 등에서 엇갈리는 결과와, 문화에 따라 심리적 독립 하위차원에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관련 변수들 중에서 중요성에 비해 연구가 미진하면서도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이성교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관련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결과이다. Frank, Avery와 Laman(1988)은 20-30대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독립성이 낮음을, Lopez, Campell과 Watkins(1986)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심리적 독립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남학생의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임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박정윤, 김예리, 2010; 이지인, 박성연, 2008). 그러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독립과 어머니에 대한 독립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한데(Tokar, Witheow, Hall, & Moradi, 2003), 성별에 따른 차이와 부모 각각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정리된 결과는 아직 뚜렷하게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 각각에 대한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에 대한 성차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으며, 성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고려하여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재조명해보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독립에 대한 연구는 Hoffman(1984)이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심리적 독립을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 갈등적 독립의 네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PSI(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PSI를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서양의 사회문화적 차이와 내용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4개 차원 모두를 사용하기보다 갈등적 독립 또는 정서적 독립 등 척도의 일부만을 선별하여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연구 결과 또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심리적 독립척도가 우리나라 대학생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요인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고, 이를 통해 심리적 독립이 관련 변수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요구된다.

요약하면, 심리적 독립 척도의 재구성을 통해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심리적 독립의

성차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경우에 대해 심리적 독립이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성관계란 이성교제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Sippola, 1999), 이성관계의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은 인간의 발달과정 및 미래사회 가족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맥락이 된다(엄혜정, 정혜정, 2006; 홍대식, 1998). 이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로, 갈등해결전략을 들 수 있다(김나리, 2001; 이경은, 박경, 2006). 갈등해결전략은 갈등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뜻하는데, 판단하지 않는 경청, 동정심, 융통성, 타협하고자하는 의지 등의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은 이성관계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반면, 부인, 비난, 공격, 부정적 상호관계 등의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은 이성관계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김나리, 2001; Cramer, 2000).

흥미로운 것은 이성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갈등해결전략이 앞서 언급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들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강선희(2009)는 심리적 독립 정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어, 특히 갈등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적게 사용한다고 보았으며, 이지영(2003)은 심리적 독립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심리적 독립의 하위영역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강선희, 2009), 성차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한 심리적 독립정도를 고려하여 진행된 연구 또한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중인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지고는 있으나 일치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성별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심리적 독립의 특성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중심으로 부모의 심리적 독립에 따른 이성교제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의 상관과 영향력을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주요 발달과업인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심리적 독립을 통한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관계만족도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근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수(성별, 학년, 거주 지역, 부모 동거여부, 형제순위, 교제기간)에 따라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이성교제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녀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이성교제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와 각각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남녀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이성교제시의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생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은 남학생 188명(45.4%), 여학생 226명(54.6%)으로 이중 조사당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은 231명(55.8%),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은 183명(44.2%)이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성교제시의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관계만족도는 조사 당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져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23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 128명(55.4%), 남학생 103명(44.6%)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 81명(35.1%),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51명(22.1%), 1학년 48명(20.7%)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 119명(51.5%), 경기 112명(48.5%)이었으며,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동거가 165명(71.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취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42명(18%), 어머니하고만 사는 경우 16명(6.9%), 아버지하고만 사는 경우 8명(3.5%) 순으로 나타났다. 형제순위는 첫째 106명(45.8%), 막내 70명(30.3%), 중간 33명(14.4%), 외동 22명(9.5%) 순으로 첫째가 가장 많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성교제의 기간은 6개월 이하가 92명(39.8%), 13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54명(23.4%),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 44명(19.0%), 25개월 이상 41명(17.8%)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심리적 독립 척도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기 위해 Hoffman(1984)이 제작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 PSI)'를 정은희(1992)가 번안, 수정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각각 69문항씩 총 138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번안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13문항씩을 각각 제외시킨 112문항으로 수정하였다. 하위요인은 기능적 독립

〈표 1〉 최종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남 (n = 103)	여 (n = 128)	전체 (N = 231)	
학년	1	21(20.4)	27(21.1)	48(20.7)
	2	23(22.3)	28(21.9)	51(22.1)
	3	24(23.3)	27(21.1)	51(22.1)
	4	35(34.0)	46(35.9)	81(35.1)
지역	서울	54(52.4)	65(50.8)	119(51.5)
	경기	49(47.6)	63(49.2)	112(48.5)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66(64.1)	99(77.3)	165(71.4)
	편부 동거	5(4.9)	3(2.3)	8(3.5)
	편모 동거	7(6.8)	9(7.1)	16(6.9)
	비동거	25(24.2)	17(13.3)	42(18.2)
형제 순위	첫째	46(44.7)	60(46.9)	106(45.8)
	중간	9(8.7)	24(18.8)	33(14.4)
	막내	37(35.9)	33(25.8)	70(30.3)
	외동	11(10.7)	11(8.5)	22(9.5)
이성 교제 기간	6개월 이하	43(41.7)	49(38.3)	92(39.8)
	7개월-12개월	18(17.5)	26(20.3)	44(19.0)
	13개월-24개월	21(20.4)	33(25.8)	54(23.4)
	25개월 이상	21(20.4)	20(15.6)	41(17.8)

(functional independence),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의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 간의 정적 상관(맹영인, 2001; Hoffman, 1984)과 부정 상관(강선희, 2009)에 대한 상이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 갈등적 독립이 심리적 독립을 의미한다는 연구 결과(임유진 외, 2008) 등 심리적 독립 척도의 하위 영역 간 상관과 척도 사용에 대한 비일관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심리적 독립 척도의 하위요인을 재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의 과정은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 이하인 26문항을 제외하고 주성분 분석, 직각회전을 통해 요인 부하량이 .40 이상인 39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Scree 도표와 Eigen 수치를 근거로 하위요인은 2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의 내용으로 보아 요인1(23개 문항)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요인2(16개 문항)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으로 명명하였다.

요인1인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은 '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아버지(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한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면 외롭다'와 같이 자신의 일을 시행할 때 부모의 도움을 구하거나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정, 사랑,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는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점수로 채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기능적, 정서적 밀착으로부터 독립된 상태를 나타낸다. 요인2인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버지(어머니)가 나를 평가할 때면

화가 난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항상 불화상태에 있는 것 같다'와 같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이나 불안, 후회 등의 감정에 얽매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모든 문항은 역점수로 채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심리적 갈등상황으로부터의 독립한 정도를 나타낸다.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과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은 각각을 독립적인 변수로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로 측정된 각 변수의 문항내적 일치도는 .85와 .86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갈등해결전략 척도

갈등해결전략 척도(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 Scales; MADS)는 이성교제 시 나타나는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Arellano와 Markman(1995)의 척도에서 김나리(2001)가 '나의 행동'을 묘사하는 68문항을 골라 요인분석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과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으로 나누어지며,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은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갈등에서 벗어나 긍정적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50문항,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은 부정적 갈등상황의 유발과 이를 회피하는 등 비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를 5단계로 나눈 Likert방식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갈등해결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로 측정된 문항내적 일치도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93,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85로 높게 나타났다.

3) 이성관계만족도 척도

이성관계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권정혜와 채규만(1999)의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 일부를 유소영(2000)이 이성교제에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소영(2000)은 요인분석을 통해 전반적 불만족 11문항,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11문항, 원가족 문제 7문항, 공격행동 6문항, 공유시간 갈등 5문항으로 5개의 하위척도를 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원가족 문제를 제외한 4개 하위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전반적 불만족은 이성관계에서의 불만족과 불행감,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의사소통문제는 이성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이나 정서적 친밀성의 결여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행동은 이성관계에서 언어적 위협과 신체적인 공격행동의 수준을 평가하며, 공유시간 갈등은 이성교제시 함께 여가를 보내

는 시간과 동료애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들은 합산되지 않고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하위차원에서의 이성관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점수를 역산하여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 부정적 표현으로 제시되어있는 하위요인의 명칭을 같은 의미의 긍정적 용어로 수정하여, 전반적 불만족은 '전반적 만족'으로,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는 '정서적 의사소통'으로, 공격행동은 '비공격적 행동'으로, 공유시간 갈등은 '공유시간 만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로 측정된 문항내적 일치도는 전반적 만족 .92, 정서적 의사소통 .72, 비공격적 행동 .70, 공유시간 만족 .76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응답자가 문항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09년 9월 유의표집한 대학생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에서 25분 정도였다. 본 조사는 2009년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대학 각 2곳씩에서 '결혼과 가족'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중 응답 내용이 부실한 36명의 자료를 제외한 414부를 코딩한 후 연구목적에 합당한 23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심리적 독립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갈등해결전략, 이성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 및 일원배치분산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부모 각 각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이성교제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라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이성

관계시의 갈등해결전략, 이성관계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년, 거주 지역, 부모와의 동거여부, 형제순위, 교제기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독립표본 t -검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만족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변수 중심으로 정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남: $M = 2.97$, $SD = .56$ / 여: $M = 2.71$, $SD = .58$ / $t = 3.06$, $p < .01$)과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남: $M = 3.71$, $SD = .56$ / 여: $M = 3.53$, $SD = .60$ / $t = 2.04$, $p < .05$)에서 모두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심리적 독립에 대한 성차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심리적 밀착에 있어서는 어머니(남: $M = 2.97$, $SD = .56$ / 여: $M = 2.71$, $SD = .58$)에 비해 아버지(남: $M = 3.15$, $SD = .75$ / 여: $M = 3.24$, $SD = .66$)로부터 더욱 독립되어 있으며, 심리적 갈등에 대해서는 아버지(남: $M = 3.67$, $SD = .74$ / 여: $M = 3.50$, $SD = .78$)에 비해 어머니(남: $M = 3.71$, $SD = .56$ / 여: $M = 3.53$, $SD = .60$)로부터 더욱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이성교제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비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만족에서도 나타났다. 이성교제시 상대방의 비공격적 행동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여학생($M = 4.32$, $SD = .71$)이 남학생($M = 3.96$, $SD = .7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 = -3.35$, $p < .001$).

부모 동거여부와 관련해서는 부모와의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은 어머니하고만 사는 경우($M = 3.98$, $SD = .81$),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M = 3.18$, $SD = .76$),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M = 3.15$, $SD = .64$), 아버지하고만 사는 경우($M = 3.09$, $SD = .27$) 순으로 나타났다($F = 6.10$, $p < .001$). 사후검증 결과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와 아버지하고만 사는 경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그 외에는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와의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버지하고만 사는 경우($M = 3.57$, $SD = .84$),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M = 3.00$, $SD = .58$), 어머니하고만 사는 경우($M = 2.93$, $SD = .66$),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M = 2.72$, $SD = .54$) 순으로 나타났으며($F = 5.86$, $p < .001$), 사후검증 결과 아버지하고만 사는 경우와 부모 모두와 함께 사는 경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의 심리적 밀착으로부

〈표 2〉 성별과 부모 동거여부에 따른 심리적 독립, 갈등해결전략, 이성관계만족도 차이

(N = 231)

	심리적 독립				갈등해결전략		이성관계만족도				
	밀착		갈등		긍정	부정	전반적 만족	의사소통	비공격 행동	공유시간	
	부	모	부	모							
성별	남 (n = 103)	3.15(.75)	2.97(.56)	3.67(.74)	3.71(.56)	3.64(.50)	2.52(.59)	3.84(.75)	3.50(.54)	3.96(.75)	3.55(.66)
	여 (n = 128)	3.24(.66)	2.71(.58)	3.50(.78)	3.53(.60)	3.75(.44)	2.60(.58)	3.93(.71)	3.58(.55)	4.32(.71)	3.61(.67)
	t	-.88	3.06**	1.52	2.04*	-1.68	-.94	-.84	-1.05	-3.35***	-.60
동거	부모 (n = 165)	3.15(.64) _a	2.72(.54) _a	3.55(.77)	3.53(.58)	3.72(.48)	2.59(.59)	3.89(.74)	3.55(.56)	4.21(.74)	3.60(.67)
	편부 (n = 8)	3.09(.27) _a	3.57(.84) _b	3.41(.65)	3.68(.59)	3.52(.23)	2.26(.69)	3.60(.90)	3.38(.43)	3.56(.82)	3.00(.90)
	편모 (n = 16)	3.98(.81) _b	2.93(.66) _{ab}	3.41(.90)	3.68(.77)	3.86(.40)	2.38(.72)	4.19(.57)	3.58(.61)	3.92(.79)	3.69(.60)
	비동거 (n = 42)	3.18(.76) _c	3.00(.58) _{ab}	3.69(.74)	3.79(.56)	3.66(.47)	2.60(.51)	3.89(.70)	3.57(.48)	4.31(.73)	3.57(.63)
	F	6.10***	5.86***	.55	2.11	.86	.98	1.00	.19	2.13	1.45

주. 같은 아래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p < .05$ 수준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터의 독립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을 때, 어머니와의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은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을 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머니와의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이 부모 모두와 함께 살 때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부모와 함께 생활할 경우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보다 밀착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심리적 밀착에 대해서 어머니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독립적이라는, 앞서 도출된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 밖의 다른 변수에서는 부모 동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남녀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이성교제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

남녀 대학생의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심리적 독립과 갈등해결전략,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만족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심리적 독립에 성차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심리적 독립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아버지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 $r = -.23, p < .05$ / 아버지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r = -.28, p < .05$ /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r = -.33, p < .01$)에서 만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었다. 여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어머니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 $r = -.21, p < .05$)과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아버지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r = -.23, p < .01$ / 어

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r = -.30, p < .01$)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정리하면, 심리적 독립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에서 남학생은 아버지와 심리적 밀착 및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그리고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어머니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적게 사용하며 아버지,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은 비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만족(아버지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 $r = .13, p < .05$ / 아버지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r = .37, p < .01$)과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r = .23, p < .05$)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여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아버지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r = .20, p < .05$ /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r = .33, p < .01$)과 전반적 만족(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r = .20, p < .05$)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남학생은 아버지와 심리적 밀착 및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비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만족이 높았으며,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여학생은 아버지,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이성관계의 전반적 만족도가 높았다.

〈표 3〉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

(남학생 $n = 103$, 여학생 $n = 128$, 전체 $N = 231$)

			갈등해결전략		이성관계만족도				
			긍정적	부정적	전반적만족	의사소통	비공격행동	공유시간	
심리적 독립	부	남학생	.12	-.23*	.14	.15	.13*	.11	
		여학생	.00	-.08	.05	.02	-.05	.14	
	모	남학생	-.04	-.17	.05	.10	.23	.07	
		여학생	-.21*	-.01	-.15	-.15	-.16	-.00	
	갈등	부	남학생	.02	-.28*	.10	.08	.37**	-.06
		여학생	.05	-.23**	.17	.20*	.09	-.02	
모	남학생	.18	-.33**	.19	.23*	.15	.07		
여학생	.07	-.30**	.20*	.33**	.17	.08			

* $p < .05$, ** $p < .01$.

3. 남녀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이성교제 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녀 대학생이 부모 각각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된 정도가 이성교제시의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로 단계적투입방식(stepwise method)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간 다중 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 영역에서 2에 근접한 1.93-2.41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 값 또한 모두 0.1 이상으로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심리적 독립에 성차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남녀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이성교제시의 갈등해결전략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에 어머니와의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beta = -.34, p < .01$)이 12%의 설명력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사

용에 어머니와의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beta = -.21, p < .05$)이 4%의 설명력으로 부적인 영향을, 부정적 갈등해결 전략의 사용에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beta = -.32, p < .001$)이 10%의 설명력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독립의 네 차원 중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적게 사용하며,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관계만족도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정서적 의사소통 만족에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beta = .23, p < .05$)이 6%의 설명력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만족에 아버지와의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beta = .45, p < .001$)과 아버지와의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beta = .25, p < .05$)이 20%의 설명력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이성관계의 전반적 만족감에 어머니와의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beta = .21, p < .05$)이 4%의 설명력으로 정적 영향을

〈표 4〉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남학생 $n = 103$, 여학생 $n = 128$, 전체 $N = 231$)

종속변수		독립변수	B(SE)	β	R^2	ΔR^2	F	
갈등해결전략	긍정적	남	-	-	-	-	-	
		여	어머니와 밀착으로부터의 독립	-.16(.07)	-.21*	.04	.04	5.76*
	부정적	남	어머니와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35(.12)	-.34**	.12	.12	9.19**
		여	어머니와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30(.08)	-.32***	.10	.10	13.72***
이성관계만족	전반적만족	남	-	-	-	-	-	
		여	어머니와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25(.10)	.21*	.04	.04	5.70*
	정서적 의사소통	남	어머니와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22(.11)	.23*	.06	.06	4.10*
		여	어머니와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30(.08)	.33***	.11	.11	15.55***
	비공격행동	남	아버지와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39(.11)	.38**	.14	.14	11.90***
		여	아버지와 밀착으로부터의 독립	.45(.11)	.45***	.20	.06	8.87***
		아버지와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25(.11)	.25*				
		여	-	-	-	-	-	

* $p < .05$, ** $p < .01$, *** $p < .0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에 어머니와의 갈등으로부터의 독립($\beta = .33, p < .001$)이 11%의 설명력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와의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이며, 비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과 밀착으로부터의 독립 순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이성관계에서의 전반적 만족도와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에는 어머니와의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비일관적인 양상을 보이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형태와 성차를 중심으로 심리적 독립 수준에 따른 이성관계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과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만족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이다. 성별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고,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심리적 독립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먼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대학생 모두 심리적 밀착에 있어서는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수준이 더 높고, 심리적 갈등에 있어서는 어머니로부터의 독립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별을 떠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어머니에게 보다 밀착되어 있고, 아버지와는 보다 갈등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 수준이 더 높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심리적 독립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연구결과들(박완성, 2003;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 1999; 조영주, 최혜림, 2001)과 남성이 여성보다 어머니와 더 독립적(박정운, 김예리, 2010)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원인을 생각해보면, 가족 구조적 측면에서 여성은 성인기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결혼 전까지 부모로부터 보호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핵가족화 및 신(新)모계사회로의 가족구조 변화가 진행되면서 결혼 후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의 보호와 통제를 계속 받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진하와 최연실(2006)은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는 형편이며, 그에

따라 여성은 사회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의존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미숙한 불완전한 성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이성교제만족도에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이성교제시 비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교제시 상대방으로부터 느끼는 언어적 위협과 신체적인 공격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학생의 만족감이 더 높았다는 것은 이성관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을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갈등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김나리(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부정적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남녀의 대처방식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는 것으로, Hazan과 Shaver(1987)는 남성은 문제를 회피하며 강한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폭발적으로 화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허선이(2006)는 부정적 갈등상황에서 여성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직면하려는 시도를 더 많이 하는 가운데 남성보다 부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관련해서는 부모와의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아버지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 수준이 높고,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어머니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 수준이 높다. 이는 충분히 개연성 있는 결과이나, 특이한 점은 부모 모두와 함께 살 때 어머니와 심리적 밀착에 대한 독립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부모와 함께 생활할 경우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보다 밀착되어있는 것으로, 이는 결국 심리적 밀착에 대해 어머니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독립적이라는, 앞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둘째, 남녀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이성교제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와 상관을 가진다. 먼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은 남학생의 경우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교제만족도, 여학생은 갈등해결전략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 남학생은 아버지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이성관계시 갈등상황에서 부정적인 대처행동이 적어지고 상대방과의 비공격적 감정 표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여학생은 어머니와 밀착될수록 이성관계의 갈등상황에서 긍정적 갈등해결을 사용하는데, 이는 가족의 적응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서적 독립 수준이 낮다는 맹영임(2001)의 연구 및 부모와 심리적 독립 정도가 낮은 여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는 조윤주(201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와의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성의 부모와의 관계가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결과는 ‘성-역할 사회화’(Chodorow, 1973)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역할 사회화된 남성에게는 자율성, 도구적 행동을 강조하고, 여성에게는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 양육적 행동을 강조하는 사회화 과정이 아동기를 거쳐 내면화되며, 문화적 규범에 의해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조운주, 2010). 이 과정에서, 동성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적인 성역할을 학습하는 동안, 남학생은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행동을 강화 받아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여학생에게는 관계 중심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되면서 어머니와의 밀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갈등으로부터의 독립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 모두 부모로부터 독립할수록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적게 사용하며, 이성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 역시 어머니로부터 독립적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남학생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비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만족감이 높고, 여학생은 어머니와의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이성관계에 대한 전반적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은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에 비해 다른 변수와의 관계에서 비교적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의 일부 연구는 ‘갈등에 대한 독립’ 요인이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Baker와 Siryk(1989)는 적응과 관련한 연구에서 갈등적 독립 척도는 다른 하위척도와 상관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응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이를 심리적 독립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Lopez, Campell과 Watkins(1986) 또한 갈등적 독립 요인이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심리적 독립의 명백한 지표라고 언급하였다. 임유진 외(2008)도 갈등적 독립이 심리적 독립을 대표한다고 보고 갈등적 독립척도만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개인주의적 특성을 지닌 서구와 집단주의적 특성을 가진 동양에서 심리적 독립의 개념과 하위범주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의 응집성을 중요시 여기는 유교문화권에 속하므로 Hoffman(1984)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리적 독립을 측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김영근, 임성문, 2005). 갈등으로부터의 독립 척도는 대체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내용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긍정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반면, 부모와 심리적 밀착으로부터의 독립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

로도 생각된다. 따라서 심리적 독립에 대한 보다 타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심리적 독립의 개념 정리 및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척도의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이성교제시의 갈등상황에서 부정적 해결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밀착될수록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주목할 부분은 남녀 모두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머니와의 관계라는 점이다. 통상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적 측면인 자아개념, 자아통제의 발달의 근원이며, 어머니와의 관계는 정서적 관계의 주축으로 논의되고 있다(임유진 외, 2008). 갈등해결전략은 이성관계에서의 정서적 부분을 다루는 능력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성관계에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을 줄여 보다 원만하고 건강한 이성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어머니와의 관계, 특히 심리적 갈등과 관련하여 분리-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와의 심리적 밀착이 높을수록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성-역할 사회화로 인해 부모, 특히 동성의 부모인 어머니와의 밀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오히려 이를 안정된 정서적 기반으로 삼아 이성관계의 갈등상황에서도 긍정적 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운주(2010), 맹영임(2001)의 연구 등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과 어머니의 심리적 밀착과 독립의 관계를 보다 새롭게 조명하고 심리적 독립에 대한 발달과정을 새롭게 정립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남녀 대학생 모두 어머니와의 갈등으로부터 독립적일수록 이성관계에서의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여학생은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높다. 즉, 어머니와의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성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의존이나 기대 정도를 좌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부부 결혼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임유진 외(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어머니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의 독립이 이성관계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아버지에 대한 독립은 남학생의 비공격적 행동으로 인한 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성차가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임유진 외, 2008) 지지한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와의 관계와 달리, 아버지와의 관계는 동

성인 남학생에게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동성부모, 이성부모에 대한 성치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추후에 이를 고려한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에 대한 탐색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만 성차가 존재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독립수준을 보였다. 또한 남녀 모두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밀착된 양상이며, 이는 오히려 이성관계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심리적 독립에 대한 개념 재정리 및 척도의 개발이 시급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이 효과적인 갈등해결전략의 사용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검증함으로써, 건강하고 원만한 이성관계를 위한 근본적인 부모와의 관계 및 심리적 독립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담 및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이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표집이 서울, 경기도의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심리적 독립을 측정함에 있어 요인분석을 통해 도구의 재구조화 단계를 거쳤으나,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여 추후 심리적 독립 척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조화 및 타당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 각각의 영향만을 살펴보았는데,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상관 결과를 고려할 때,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만족도의 직접효과와 함께 심리적 독립의 갈등해결전략을 통한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추후에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특성과 심리적 독립이 이성관계에서의 효과적인 갈등해결 전략 사용 및 관계만족도를 높이는 변수임을 밝히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강선희(2009).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이 이성관계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정혜, 채규만(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김나리(2001).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임, 김창대(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10(3), 1573-1591.
김순정(2000). 대학생의 진로발달유형과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근, 임성문(2005). 심리적 독립과 애착 및 상호의존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 직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상담학연구**, 6(1), 171-184.
김유숙(2002).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맹영임(2001).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완성(2003).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심리적 독립성,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정윤, 김예리(2010). 미혼 성인자녀의 부모-자녀간 유대감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심 지각이 결혼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4), 13-24.
박찬주(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지영(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 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진희, 김봉환(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엄혜정, 정혜정(2006).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 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2), 137-152.
유소영(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은, 박경(2006). 대학생의 성행동-태도 일치도 및 갈등 해결전략과 이성관계만족도와와의 관계. **(다학제적접근) 심리치료**, 6(2), 14-60.
이영선, 김정희, 이영순(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137-161.
이지영(2003).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 및 자아정체감과 의사결정유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인, 박성연(2008). 어머니의 애착경험 및 심리적 통제행동과 어머니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이 청소년의 심리적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지**, 29(3), 175-189.
이진하, 최연실(2006).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가족체계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24(4), 75-92.
- 임유진, 박정윤, 김양희(2008). 월가족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심 지각과 신혼기 결혼적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43-154.
- 장수지(2009). 부부관계 심리적 자립으로 본 부부유형에 따른 부부관계의 질: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33-151.
- 정윤경(2004).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1992).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성숙(1994). 자아정체감과 독립성 및 애착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주, 최해림(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 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2), 71-91.
- 조윤주(2010).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가족의 적응성이 자녀의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7-26.
- 허선이(2006).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1998). 한국 대학생의 사랑 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81-110.
- Arellano, C., & Markman, H.(1995). The 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 (MADS): A self-report measure assessing conflict management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 319-334.
- Baker, R. Q., & Siryk, B.(1989).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Louisian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Beyer, W., & Goossens, L.(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363-382.
- Chodorow, N.(1973).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Journal of Social Issues*, 32, 197-206.
- Cramer, D.(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34(3), 337-341.
- Frank, S. J., Avery, C. B., & Laman, M. S.(1988). Young adul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Individual differences in connectedness, competence, and emotional autonomy. *Developmental Psychology*, 24, 729-727.
- Frank, S. J., Pirsch, L. A., & Wright, V. C.(1990). Late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71-587.
- Goldenberg, I., & Goldenberg, H.(1991). *Family therapy on overview(3rd)*. California: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Josselson, R.(1988).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an*. San Francisco: Jossey-Bass.
- Kinniner, R. T., Brigman, S. L., & Noble, F. C.(1990). Career indecision and enmeshment.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68, 309-312.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 Lopez, F. G.(1989). Current family dynamics, trait anxiety, and academic adjustment: Test of family-based model of vocational ident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76-87.
- Lopez, F. G., Campell, V., & Watkins, C. E.(1986). Depression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An investigation for sex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460-467.
- Moore, D.(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 Psychology*, 32(2), 298-307.
- Sippola, L. K.(1999). Getting to know the "other":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other-sex relationship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4), 407-418.
- Tokar, D. M., Witheow, J. R., Hall, R. J., & Moradi, B.(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ttachment security, vocational self-concept crystallization, and career indeci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19.

접 수 일 : 2011년 7월 31일

심사시작일 : 2011년 8월 9일

게재확정일 : 2011년 9월 19일